

HIA에서는 SDGs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HIA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 "교류인구의 확대", "국제교류 인재육성의 공헌"을 주요 활동축으로써 다양한 국제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SDGs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목표 17개와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의 국제교류활동이 SDGs에서 어떠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지 SDGs달성을 위하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 SDGs란?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약칭으로 2015년 9월에 국제연합 서밋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국제개발목표입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달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모두가 지속가능하고 **다양성(Diversity)**과 **포괄성(Inclusion)**이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입니다.



? 국제교류에 있어 SDGs란?

효고현에서는 SDGs의 이념에 맞춘 "효고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2021년 3월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글로벌한 **다양성(Diversity)**을 살려서 효고현 주민과 함께 활약하는 **포괄성(Inclusion)**이 풍부한 효고현의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국제교류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구래!

?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 ▶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배운다.
- ▶ 국제교류이벤트에 참가하여 이문화이해도를 높인다.
- ▶ 학교 및 직장의 규칙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말을 건다.
- ▶ 쉬운 일본어 상화를 수강한다.
- ▶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생각한다.
- ▶ 외국인 친구를 만든다.
- ▶ 일본어 및 일본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가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가까이에 이렇게
많이 있었네



HIA의 활동과 SDGs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

일본어강좌 개최



재해발생시 외국인 지원



우크라이나 파란민지원



외국인현민 정보센터(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운영



국제교류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 협의회)



교류인구의 확대

효고 국제교류 카라반 프로젝트



국제교류 인재육성

국제교류 세미나 실시



방일교육여행의 유치촉진 및 학교 교류지원



효고 국제교류단체연락협의회의 구성단체로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 효고현의 국제교류원(CIR)이 함께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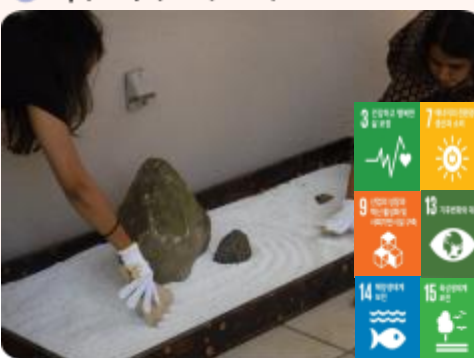
국제교류 기획전시회의 개최



예 2022년 10월 25일 "SDGs와 국제교류" 세미나
효고현립대학 감사 다카하시 아야코(高橋綾子) 교수님으로부터 SDGs의 개요를 배운 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효고현립대학 환경인간학부 3학년이 학생 국제협력단체 CHISE대표를 맡고 있는 키사다 유나(岸田夕奈)씨가 라오스의 아이들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HIA는 효고현 우크라이나 파란민 지원활동을 소개했습니다.

HIA의 이벤트 및 갤러리 개최정보는 매일매거진 및 페이스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연수원 수용



일본정원 카레산수(枯山水) 연구

효고 국제플라자 교류갤러리에서 국제교류에 관련한 기획 전시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이벤트 등의
최신정보를 소개합니다!
Come HIA & Join us!

효고국제교류
매일매거진



일본어(등록 무료)

일부 정보를
다언어로
HP에 게재 중



Facebook
Like us on Facebook





다문화공생의 창문

HA의 아에노(前野) 직원이 작년 가을에 참가한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교류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과 우크라이나 파란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다문화주의국가 호주에서 배우다



2022년 11월 중순 무렵 자치체국제화협회가 주최한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墨尔本 시내의 행정기관, 학교, NPO단체를 방문하여 다문화공생사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시설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Caulfield Primary School



빛꽃 마크가 그려진 교지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철저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수 수업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발언을 하여도 선생님은 일본어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어학 레벨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어와 일본어를 이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 실현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 (교실 벽)

② Ames(Adult Multicultural Education Services)

Ames는 이민과 난민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로 영어교육 및 취업, 주거지 찾기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 이민과 난민을 지원할 때에는 가능한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스태프가 담당을 맡으며 세세한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 등을 통해 이민과 파란이 호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호주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MES General manager 와타세 (첫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4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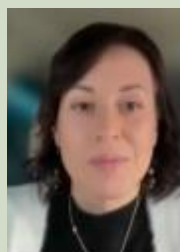
아에노(前野)직원2명 오른쪽 끝

우크라이나 파란민지원 - 일본어학습의 기회 제공과 파란민 수용측을 위한 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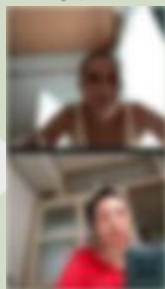
효고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HA에서는 파란민을 대상으로 일본어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파란민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교배지에서는 교배지가 주체가 되어 강화를 진행하고 교배지 이외의 사정(市町)에서는 HA가 일본어 학습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교배지에 비해 적은 수의 파란민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강화가 효고현에 살고 있는 파란민 분들을 이어주는 마음 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잇는 온라인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최우선적으로 배우고 장 보기 전차 및 버스에서 사용하는 표현 등을 배워가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효고현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 및 유학생으로써 일본어는 물론들도 수업 서포트 및 자료의 번역 등 다양한 지원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심씩 늘려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어 서포터 오라카씨



이 강화에서 배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지역 주민분들과 교류하고 이것이 지역사회화 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난민 지원에 관여해 온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난민 분들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난민 지원 시 필요한 배려 사항과 기본적인 지식 및 정보를 배우는 연수회를 3회에 걸쳐 개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HA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과 파란민분들이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파란민을 위한 지원을 생각해 보는 연수회

~난민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배워봅시다~

제 1회	일본의 난민 수용 공익재단법인 아시아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 인사이본부 中尾秀一(나카오 슈이치)씨 "제 3국 정부난민의 지역 정부지원의 현상으로부터 제 3국 정부난민의 지역 정부지원의 현상으로부터 오이시 와카유이(大石貴之)씨"
제 2회	"지역의 난민 수용에 대하여 생각해보다" 사회복지법인 일본국제사회사업단 이시카와 아메코(石川美絵子)
제 3회	"사이에 맞춘 지원을 목표로" 사회복지법인 일본국제사회사업단 이시카와 아메코(石川美絵子)

2023년도 호교 EU세미나 "주 교토프랑스 총영사 강연회를 개최

12월 6일 간사이 총영사단 단장인 Jules Brmann 주 교토프랑스 총영사님을 호교현에 초청하여 고베주심관(神戸酒心館)에서 나다고고(灘五郷)・청주 "후쿠주(福寿)"의 사카구라(酒蔵, 술창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6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전반부에서는 Brmann 총영사님이 "들으면 놀랄 프랑스! ~여러분이 잘 모르는 프랑스~"라는 주제로 문화, 역사, 사상, 교육, 경제정보 등에 대하여 강연. 참가자로부터 질문(호교현과 프랑스의 교류, 파리 2024 하계 올림픽 등에 대하여)에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고베주심관에 병설하는 술창고 고 급 요리인 연회요리와 일본주를 맛보면서 총영사님과 함께 교류회를 실시 식사 중에는 1889년에 고베에 오신 Pierre de Lucy Fossarieu 고베 오사카 프랑스 영사님의 가족사진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모여 기념촬영



올림픽 파랑람파의 마스코트

이번 세미나에서는 3천만에 행사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는 "실제로 교류 할 수 있어서 기뻐다.", "프랑스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다.", "프랑스를 다양한 각도를 통해 알 수 있어 프랑스에 대해 더욱 흥미가 생겼다." 등의 감상을 전하였습니다.

중국・하이난섬에 더욱 가까워져보는

"호교・하이난 국제교류살롱"

11월 23일 호교현과 우호연제자인 중국・하이난섬을 소개하는 "호교・하이난 국제교류살롱"을 하이난섬과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지와 연결하여 진행한 이번 살롱

은 우선 첫번째로 하이난외사변공실(配何外事弁公室)의 Zeng Xiaoming 주임으로 부터 하이난섬의 개요 및 호교현과의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 하이난섬 각지의 기후풍토 및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현지에서부터 하이난섬에 거주하고

있는 하야시 유에(林由恵) 일본인회 회장님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이커우시(海口市)에 있는 인기 관광지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남양 스타일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Qilou Old Street(騎樓老街)"과 시민의 생활의 장소인 "Dongmen Market(東門市場)"의 모습 생동제로 전하였습니다. 사회진행 맡은 하이난섬 출신의 국제교류원 왕추생(王秋生)씨는 하이난섬에 대한 기본정보 이외에도 과일과 요리 등의 음식과 낯설 습관이라는 흥미있고 특징적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살롱은 대성황 속에서 종료하였습니다.



Welcome our new CIR!

새로운 국제교류원이 부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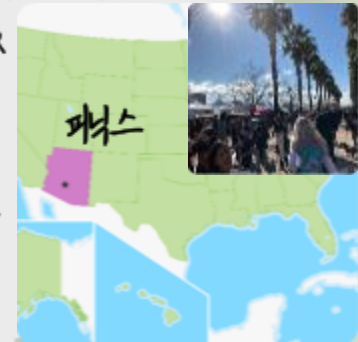
온 칭 세인(Qin Sieng)이라고 합니다. 아리조나: 연중 내내 온난한 특징을 가진 곳입니다.

저는 올해 7월부터 국제교류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을 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리조나주의 변호사로서 형법과 민권에 관련한 안전을 맡았습니다. 저의 취미는 피아노 연주와 어학공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광둥어, 스페인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와 프랑스어도 공부 중입니다. CIR 만이 할 수 있는 책임, 보람 그리고 도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worlds를words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칭 세인씨



아리조나주의 파닉스는 여름에 기온이 50도까지 상승합니다.

지면에 제란을 두면 제란이 익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